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14	02. 21	02. 28
대 표 기 도	김효중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김효중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신약통독-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십시오.
2. Zoom 예배 - 수(19시, 믿음의 여인들) 금(20시, 시편 기도)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미자 권사(10일) 김승주 자매(13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형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61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막 10 : 41 - 45(신p73).....정용현 안수집사
 설 교 Predigt 예수님이 원하는 리더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63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효종 집사

삶이 통제를 벗어날 때

오래 전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아내 Babara와 함께 공공 얼어붙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다리에 접어들 무렵 차가 통제를 벗어나 빙글 돌았습니다. 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핸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브레이크도 자동차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의 모든 뼈가 쇠처럼 경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동차가 그렇게 도는데도 어떻게 다리를 건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도랑에 박혔을 때, 눈을 감고 느긋한 표정으로 똑바로 앉아 있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에서 나와 얼음으로 덮은 풀밭으로 나왔을 때 아내는 평온함과 내 긴장감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환경이 그녀에게 긴장을 명령했을 때조차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최선의 대답은 언제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의 걸음이 우물 벽을 뚫고 나온 뿌리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곧바로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걱정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물 벽에서 자라는 풀잎에 손을 뻗었습니다. 풀잎에는 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공포 속에서 그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위기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영성의 원동력 / Calvin Miller 목사
 (신학교 교수 및 기독교 작가)

*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적다
 - Thomas. A.. Kempis(1830~1471년)-